

# 내 몽니가 진짜 몽니!

(급성 조증 상태의 조울병)

22세의 여자 환자가 가족들에 의해서 병원에 실려 왔다. 환자는 높은 톤의 목소리로 실새 없이 종알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는 아픈 데도 없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찰 받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큰소리를 내며 그것을 만류하는 보호자에게 심하게 짜증을 냈다. 진료실에서 그녀는 “나는 IQ가 200인데 의사 선생은 얼마나 되느냐? 나는 일어, 중국어, 독일어 등 5개 국어 이상을 줄줄 한다”라며 무척이나 빼겼다.

그녀는 “나는 잠을 안자도 힘들지 않고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받은 사람이야!”라며 묻지도 않은 말을 계속 지껄어 댔다.

잘 한다는 일어를 한 번 해보라고 하니, “흥! 내가 못 할 줄 알고? 잘 들어! 와다시와! 아지노모도, 조센징! 어때? 잘 하지?”라고 응수했다. “어디서 배웠느냐”니까 “나는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다 아는데 뭘 더 배워? 모르는 것 있으면 또 물어 봐!”라며 몹시 즐거워하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때린 우리 어머니는 보름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불쌍하니까 한 달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한 슈퍼 아저씨는 미우니까 일주일 이상 못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나는 억울하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며 느닷없이 큰 소리로 통곡을 시작했다.

그 환자는 조증 상태에서 5개월 여 이상을 병원 치료 없이 곶을 하거나 안수기도를 받으며 버텨 오다가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 의해 병원에 이끌려온 상태였다.

조울병이란 일정한 시간적 주기를 두고 심한 우울 상태와 조증 상태(우울 상태와 반대로 기분이 붕 뜨는 상태)가 반복되는 ‘기분의 장애’를 의미한다.

조증 상태에서 환자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히며, 음식과 수면을 거부한다. 실제로 먹지 않고 잠자지 않아도 피로하거나 시장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 때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럴 듯한 계획이 잘 떠오르며 풍부한 어휘력이 발휘되지만 사고(思考)가 워낙 비약하는 바람에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오

락가락 하는 양상을 보인다.

과대망상이 특징적이어서 자신을 미인, 천재, 발명가, 초능력자 등으로 믿고 일면 그럴 듯한 행동을 결들인다. 자신의 주장이 워낙 강해 자신의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몹시 흥분하고 도전적인 행동을 취한다.

심한 경우 타인을 구타하여 형사 사건화 하는 경우도 있으며, 남녀를 불문하고 지나친 성욕으로 인해 심각하게 방탕한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자신이 갑부라는 생각으로 마구잡이로 신용 카드를 긁어 대거나 혹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 은행 빚을 잔뜩 걸머지기도 한다.

어떤 환자는 자신의 명함에 뭔지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한 직함을 십여 개씩 인쇄하여 다니기도 한다. 필자가 경험했던 한 환자는 ‘대한 바르게살기 협회 이사’, ‘한국 사회 보장 협회 자문 위원’, ‘H아파트 운영 위원회 상임 고문’, ‘한국 생산성 향상 추진 위원회 위원’, ‘대한 노인 협회 후원회 부 이사장’, ‘한국 문학 협의회 선임 고문’ 등 수없이 많은 영터리 직함을 인쇄해 가지고 자랑하듯 꺼내 놓아 실소를 자아내게 한 적도 있었다.

그는 그 직함의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주장하다가 잠시 뒤에는 “장차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예의 22세 여자 환자는 입원 후 제멋대로 되지 않는다고 병실 바닥에 오줌을 누거나 벌렁 드러누워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몽니’를 부리다가 그것을 제지하는 직원에게 “너 원장님한테 일러서 잘라 버릴 거야!”라고 악을 쓰며 억울해 하기도 하였다.

자신을 일컬을 때면 “세상에서 제일 이쁜”이라는 수식어를 꼭 달았다. 그녀는 피곤해 하는 다른 환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그 한가운데에 서서 기가 막히게 공동이를 흔드는 춤을 추어 보이고 박수를 치도록 강요하곤 하였다.

밤새 잠을 안자고 뻐뻐거리던 그녀는 입원 후 보름 정도가 지난 날 필자와의 면담에서 “저, 사실은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 읍(邑)에서 제일 이뻐요”라고 하였다. 그녀는 들뜬 기분이 슬슬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고 병원 직원과 다른 환자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